

전남지역 어린이 집 10곳 중 4곳 '미인증'

평가점수도 낮아... 신안은 13곳 중 1곳도 인증 못받아

전남지역 어린이집 10곳 중 4곳 가량은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어린이집 1218곳 가운데 평가인증 받은 곳은 66.3%인 807곳에 그쳤다.

함평이 13곳 중 12곳(92%)으로 인증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흥은 22곳 중 19곳(87%), 영광 18곳 중 15곳(83%)이 인증을 받았다.

70%가 넘는 곳은 장흥(78%), 나

주(77%), 여수(76%), 영암(73%) 등 절반을 약간 넘는 12곳에 그쳤다.

어린이집이 13곳인 신안은 단 1곳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역은 어린이집 1203곳 중 1099곳이 평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92.2%에 달했다. 전국 평균 인증률은 68.3%이다.

인증 어린이집 807곳 가운데 63%인 508곳이 재인증된 보육시설이다. 지난 2005년 이후 358곳은 평가나 자격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비리 등으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인증에서 자동 탈락하게 돼 있다.

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점수는 평균 86.2점으로 총칭(85.1) 다음으로 최하위였다.

가장 높은 제주(93.4점)와는 무려 7.2점이 차이가 났다.

시군별로는 장성이 9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흥(91.9점), 함평(91.9점), 순천(91.5점), 보성(91.4점) 순이다.

해남이 78.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80점대 지역은 진도, 화순, 나주, 강진, 담양, 장흥 등 7곳이다. 어린이집 인증제는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보육환경과 과정, 운영관리, 교수법·건강, 영양·안전 등 6개 영역의 70개 지표를 평가해 75점 이상일 때 인증한다.

전남지역 인증률이나 점수가 낮은

것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인력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와 건강, 영양, 안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3년마다 시행하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점도 인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전남지역 어린이집 원아수는 모두 5만5138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만큼 인증참여에 동참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 지정 기념물 천관산 '태고송' 고사

500년의 수령을 가진 전남도 지정 기념물인 '태고송(太古松)'이 고사돼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진)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천관산 자락에서 수려한 자태를 자랑해온 태고송이 지난해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으로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흔들리는 이격현상 등으로 쇠약현상을 보이다 지난 8월에 최종 고사 판정을 받았다.

태고송은 2011년 8월 26일자로 전남도 지정 기념물 제246호로 지정된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다.

태고송은 식물 보수업체인 '우리나무병원'에서 외과수술과 수액주사(3회), 토양내 발근제 투입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생노력을 기울였으나 잎이 변색되고 뿌리가 부패하는 현상으로 결국 고사하고 말았다.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 반계 위정명(1589~1640) 시인이 '태고송'시를 지으면서 태고송으로 불려왔다. 높이가 14.5m에 근원 둘레 3.45m, 수관 폭(남북의 길이) 13.2m로 역사



적·민속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도립공원인 천관산의 명물로 알려져 왔다. /정홍=김용기기자·중부채본부장 kykim@

강진, 군민 재산권 보호

고문 변리사제도 도입

도내 지자체 총 최초

강진군이 관내 기업과 군민들에게 산업 재산권의 보호와 신규 등록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고문 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강진군은 14일자로 '리더스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이주열 변리사를 강진군 고문 변리사로 위촉했다.

고향인 강진인 이 변리사는 30년 이상을 특허청에서 재직할 특허 전문 변리사로 앞으로 2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 등 산업 재산권에 대해 자문하며 산업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대리 등을 수행한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시 대도시 법률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과도한 시간 소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군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으로 강진군은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특허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정 수행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진원 군수는 "고문 변리사를 통해 관내 기업과 군민들이 산업 재산권을 보호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다문화 음식문화 축제

다문화 음식문화 축제가 최근 나주시 금남동 야외공연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시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결혼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국가별 7개팀 20명, 결혼 이주여성 남편으로 구성된 1개팀 등 총 8개팀 25명이 12개 요리를 출품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json@kwangju.co.kr

개발 불허 임야 재허가 공무원 개입 의혹

진입로 개설과정서... 순천시, 10여명 감사 벌여

당초 개발을 불허했던 임야를 재허가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순천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별량면 용두리 인근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시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해당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 6월 이곳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순천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1차 건축심의에서 진입로가 없어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후 진입로 개설을 마치고 최근 2차 건축심의를 통과, 개발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2500㎡의 택지 조성과 너비 5m, 길이 220m의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소나무 50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산림과 묘지 훼손 논란이 일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가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감사 결과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예산 2000만원이 지원되고 면사무소, 시 분청 허가 및 예산관련 부서 등 공무원 10여명의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특히 택지로 조성된 임야가 애초 매입가격이 1억원으로 알려졌다가 개발허가를 얻으면서 수십억원대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와 해당 공무원들간 부적절한 거래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을 조사중으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60억 규모 복지재단 세운다

이사 15명·감사 2명 구성

내년 3월부터 운영 계획

60억원 규모의 여수시 복지재단이 내년 초 설립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국으로 구성된 복지재단을 출범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총 60억원의 설립 출자금 가운데 30억원에 대해서는 시출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독자적인 복지지구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정관과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창립총회 의결과 중앙부처 설립허가 신청 등의 설립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나눔문화

선도 기업의 '공헌 감동프로젝트' 수행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수요 대처 ▲복지 자원네트워크 구축 ▲각종 기부금과 위문금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재단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해오고 있는 복지재단 우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여수시의회도 최근 열린 제151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양자 여수시환경복지국장은 "시민참여 방식의 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 복지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시민참여형 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